

빨라진 등교 늘어난 수업 대비 체력 다져야



■ 중·고 새내기 학교생활 적응 이렇게

中, 담임 상담 통해 환경변화 적응 체크

高, 첫 수능형 모의시험 가볍게 치러야

새 학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초·중·고 새내기들은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 처음 학교를 접하는 초등학생은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의 관심도 남다를 수 밖에 없어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새내기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상

급학교로 가던 생활·학습·환경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변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위험업 시간을 가져보자.

◇중학교-들어나는 수업 적용률= 중학교에 처음 올라간 신입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달라진 점은 들어나는 수업시간이다. 1교시가 40분이었던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5분 늘

어난 45분이다. 고작 5분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내기들에게는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선생님의 설명을 꼼꼼히 메모하고 노트정리를 하는 등 늘어난 시간에 적응하지 못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시간 다른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에 들어오는 것 역시 새내기들에게는 무척 생소하다. 매시간 다른 교사의 수업스타일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다.

이종하 조대여중 고교생은 “학기 초에는 무엇보다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며 “초등학생 때처럼 눈에 띠는 두벌이나 복장 등을 삼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학교생활이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갖게 된다”며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은 반드시 3월에 있는 상담주간에 상담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고교-줄을 극복 묘약은 체력= 고교 새내기들은 늘어나는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빨라지는 등교시간도 부담이다. 오전 8시 이후에 여유롭게 등교했던 학생도 고등학생이 되면 7시~8시에 등교해야 한다. 자연히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수업시간에 줄을 참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게 된다.

고교 2학년에 올라가는 김모(16) 군은 “입학한 첫 해 1학기에는 줄을

을 참느라 고생한 기억이 있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시간도 길어지는 만큼 미리 기초체력을 다져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입시 체계로 들어서는 고교 신입생들은 미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학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새학기 3월에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대비해 입학 전 해당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등학생으로 보는 첫 수능형 시험인 만큼 기대보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좌절 할 필요는 없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온라인게임 강자 한국 ‘위엄’ 전남과학대 ACL 준우승

세계 800개 대학 참가

전세계 800여개 대학이 참가한 ‘아주부 대학 리그’(AZUBU Collegiate League·이하 ACL)에서 아시아팀 최초로 전남과학대학 e스포츠팀(스타2)이 최근 준우승을 이뤄내며 한국 게이머들의 우수함을 알렸다.

글로벌 e스포츠 미디어 그룹인 아주부가 후원하는 ACL에서 전남과학대는 서울대·고려대·KAIST·성강문화산업대 등을 물리치고 한국대표 자격을 획득하는 등 12승 0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아시아 대표자격

을 얻어내 화제가 됐다.

ACL는 이번에 6회째를 맞이했으며 북미, 유럽지역에서만 진행되던 리그를 아주부가 후원하며 전세계 대학리그로 확장되며 펼쳤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그랜드파이널 4강전에서 전남과학대학은 위 심대대학교를 4대0으로 압도하면 서 다크호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결승전에서 강호 UC버클리 대학과 3대 3 접전 끝에 최종 에이스 결정전에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e스포츠과 이유찬 교수는 “국내 아마추어 e스포츠뿐만 아니라 장애인 e스포츠시장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매년 3~4회의 e스포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e스포츠과

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과학대 조성수 총장은 “e스포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e스포츠팀이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세계 무대에서 최초로 준우승을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소감을 밝힌 뒤 “앞으로도 학생들을 국내외 e스포츠 리그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e스포츠과 이유찬 교수는 “국내 아마추어 e스포츠뿐만 아니라 장애인 e스포츠시장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매년 3~4회의 e스포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CL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과학대팀 e스포츠팀이 수상 후, 기념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대 학부생, 세계적 학술지에 출판 논문 ‘화제’

수의과 김다희·안아진·김규림 학생 논문 제1저자로 게재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학부생 3명이 자신의 출판논문을 국제규모 학술지에 주 저자로 게재해 화제다.

오는 26일 출판하는 수의학과 김다희씨와 안아진씨는 국내 의학계의 최우수 학술지이자 대표적인 SCI급 저널 중 하나인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에, 김규림씨는 영국 저널 ‘Parasites and Vectors’에 자신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했다.

이들은 2년 간의 예과 과정을 마치고 3학년 본과 진입 후 신설식 교수의 지도를 받아 반려동물의 진드기성 피

부질병 발생과 치료에 관한 실험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김다희씨는 ‘Caparinia tripilis’의 국내 최초발생 보고’를 주제로, 안아진씨는 ‘Otodectes cynotis’의 고양이에서의 국내 최초 발생과 치료’를 주제로, 그리고 김규림씨는 ‘Caparinia tripilis’에 의한 피부질병의 치료’를 주제로 각각 출판논문을 완성했다.

특히 신설식 교수는 과거에도 학부생들을 지도해 국제학제널에 논문을 실은 경험이 수차례 있으며, 이 중에는 피인용 횟수가 매우 많아 관련 학회에서 주목받은 논문도 있었다.

논설신식 교수는 “이 학생들은 6년 제 과정을 이수하면서 의학계열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연

구에 참여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을 쓸 정도로 우수한 자질을 갖췄다”면서 “지도교수와 함께 꾸준하고 성실히 연구에 참여한 것이 좋은 성과를 얻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신설식 교수는 과거에도 학부생들을 지도해 국제학제널에 논문을 실은 경험이 수차례 있으며, 이 중에는 피인용 횟수가 매우 많아 관련 학회에서 주목받은 논문도 있었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행남 조선대 교수 ‘산학협동대상’ 수상 대학-지역 기업 동반성장 공로 인정 받아

조선대학교 이행남(LINC사업단장) 교수는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에서 선정하는 ‘2013년 산학협동 대상’을 수상했다.

조선대 이행남 교수는 대학과 지역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호남최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LINC사업선정으로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전략화 등으로 개편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차별화된 산학협력 기관회사 제도를 도입해 산업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증진으로 청년취업과 지역경쟁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행남 교수는 “교육과 연구, 기업지원 모두를 포함하는 산학협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겠다”면서 “대학의 교육현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 산교육’이라는 학제이념 구현에 더욱 힘을 기울여 대학생 취업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당로5가 대지 265m(80) 건평990m²(300) 감정17억 선 매도1억6천
- 요양시설 적합 회순군 도곡운천 대지 5660m²(1712) 건평423m²(1681) 대지10억 범인가 18억
- 광주역5동 5층 건물 대지330m²(100) 건평1224m²(370) 전세6천 월80 대출5억3천 매도7억천
- 월간피출소 부근 신축건물 대지 437m²(132) 건평 646m²(195) 부근 11억선 대출4억4천 매도 7억2천
- 대인동 소방서 4거리 대지 649m²(210) 건평 158평 공시지가 11억7천 매도12억
- 서방지방 4거리 대지 1182m²(356) 건평 2850m²(867) 병원·요양시설 적합 공시가 23억4천 매도 19억
- 중흥동 동묘앞을 원룸으로 사용중 대지 301m²(91) 건평 1124m²(340평) 대출4억5천 보증금 5천 월730만원 매도7천만원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910m²(275) 2층주택 174m²(52) 대출5천 대지14500
- 광주역5동 대지 357m²(108) 건평 1294m²(397) 원룸65 투룸17 대출5천 원예보증금 8천에 월400만원 매도 7억
- 북구 우산동 대지 330m²(100) 건평 1366m²(412) 대출6억 보증금 8천에 월 900만 매도 10억
- 봉황면 천현리 땅 2546m²(770) 주택 102m²(31) 전원생활적합 아파트나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나대지

- 별장용주택 순창군 희문산 땅 1310m²(396) 1억5천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1300m²(400) 가든등 다용도 사용 교환가능 2억5천
- 화정역 인근 대지 1105m²(334) 오피스텔 생활주택 적합 대출1억 매도 17억3천
- 비닐하우스 나주시 불현면 담 4684m²(1417) 시설 600평 대출1억3천 매도2억천
- 복동 상암지 992m²(300) 원룸 등 적합 7억8천
- 보성군 울여면 대지·전·답·임야 747540m²(26131) 대규모 농장 등 적합 태양광 부지등 적합 18억

222-4994, 010-2632-5659,
금당로5가 광주고용센터 업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여 책임감 갖고 고객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힐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지연녹지·주도·주차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정지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도〉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일내로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m²(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창고·도로·토지·부지·부동산 등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읍 3.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95658949.co.kr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물건 처분해 드립니다.

●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계시나요?

● 전국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땅이 있으신니까?

● 은행 대출에서 건축, 분양까지 상담해드립니다.

● 전국 랜드마크 빌딩 다양한 확보!